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통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부탁드립니다.(4절)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분열과 다툼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열심이 있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이 많아도 교회가 다투고 분열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마음이 사랑과 겸손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권면의 가운데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2절)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구체적 사랑(권면, 위로, 교제, 긍휼 그리고 자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은 조건절로 표현되었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절의 ‘있거든’은 ‘~있다면(if)’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since, for)’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악 된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왜곡되고 이기적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악 된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채우고 경험할 때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고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죄성의 중심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시는 한우리 교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송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통독이번 주 성경 통독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	1/31(주일)
창 24장	창 25-27장	창 28-30장	창 31-32장	창 33-35장	창 36-38장	창 39-41장

QT이번 주 QT 말씀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	1/31(주일)
마 6:16-24	마 6:25-34	마 7:1-12	마 7:13-29	마 8:1-13	마 8:14-22	마 8:23-34

나눔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나누어 보세요.

3. 사랑과 겸손 중 내가 더 구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